

‘최악의 고비’ 넘기나 싶더니... 다시 요동치는 국내 금융시장

美 구제금융 효과 의문... 불안 계속

환율 31.50원 급등·주가 27P 하락

미국의 구제금융안에 대한 의문 등 글로벌 시장의 우려로 인해 국내 금융 시장이 또다시 요동쳤다. 연 이틀 급등했던 주가가 내림세로 돌아섰고,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르는 등 다소 불안한 양상을 보였다.

미국의 불안이 진정될 때까지는 국내 금융시장은 냉담과 온탕을 오갈 것이라든가 대체적인 반응이다. ◇금융시장 속 고르기는 15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31.50원 급등한 1,239.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5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전날 하락폭(30.00원)을 고스란히 반납했다.

우려로 국내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환율 급락을 가져온 수출 대기업의 매도세가 자취를 감춘 것도 환율 급등에 일조했다. 연 이틀 급등했던 증시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27.41포인트(2.00%) 급락한 1,340.28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외국인의 매도 공세로 한때 1,327선까지 내려갔다가 기관과 개인의 매수로 낙폭을 다소 줄였다.

코스닥 지수도 6.04포인트(1.52%) 떨어진 390.28로 장을 마쳤다. 아시아 주요증시도 대대증시의 가권지수가 전날보다 45.30포인트(0.86%) 하락한 5,246.26으로 장을 마치는 등 호조 양상을 보였다. ◇‘당분간은 불안 장세 지속’=전문가들은 글로벌 정책 공조로 국내 외화 자금시장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겠지만 당장 그 효과가 나타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방위적인 유동성 공급 조치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공포를 가라앉히는 데는 성공했지만 금융위기를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없다는 의구심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금융시장은 미국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며 다시 크게 흔들렸다. 미 정부가 전날 2천500억 달러를 투입해 뱅크오브아메리카와 메릴린치 등 주요 은행의 지분을 사들이겠다고 발표했지만 호재로 작용하지 못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통하지 않는 공포국면에서는 사태의 전개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현재 금융위기가 총체적인 ‘신뢰의 위기’로 이어지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조치들로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라며 “이번 대책이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시장이 인식하면서 다시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주식형 펀드 바람 빠지나

나흘 동안 6천억 순유출 7월 이후 2조9천억 감소

주식형펀드에서 나흘 동안 6천억 원 가까운 자금이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국내주식형펀드는 13일 기준으로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하고 270억원 순유출돼 4거래일 연속 자금 이탈을 지속했으며 나흘 동안 3천108억원의 누적 순유출을 기록했다. ETF를 포함하면 이날 빠져나간 1천344억원을 포함해 나흘간 4천831억원의 누적 순유출을 나타냈다. 해외주식형펀드도 이날 794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하며 4거래일 연속 유출 자금이 유입을 못봤으며, 나흘간 2천748억원의 누적 순유출을 보였다. ETF를 제외한 주식형펀드 전체로는 5천856억원이 순유출됐으며 ETF를 포함하면 7천579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한편 이날 자산운용협회 등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불거진 지난 7월부터 이달 10일까지 해외주식형펀드의 설정잔액 추이를 조사한 결과 2조9천 638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의류·세탁소 등 생활밀착 업종 대상 삼성 2.95~3.3%·KB카드 2.99% ↓

신용카드사들이 15일 생활밀착형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3% 전후로 일제히 인하하기로 했다. 삼성카드사는 다음 달부터 생활밀착형 제공하는 업종 중 중소가맹점이 주로 운영되는 차량정비, 서적, 세탁소, 미용원, 의류 등 34개 업종, 33만 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3.5%에서 업종별 2.95~3.3%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카드사는 “이번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 주고 일부 대형 가맹점과의 수수료 격차를 줄이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KB카드도 현행 3.00~3.29%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가운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약 35만 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2.99%로 일괄 인하할 계획이다. 수수료율 인하 대상 가맹점은 의류점, 미용·이용업소, 차량정비업소, 가구점, 서점, 화장품점 등이며 변경된 수수료율은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적용된다.

비씨카드 역시 11월부터 소상공인들이 주로 운영하는 서적, 문구, 세차장, 세탁소, 미용원 등 총 139개 업종에 96만 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3.10~3.28%에서 2.95~3.13%로 인하할 예정이다. 롯데카드사는 다음 달 중순부터 영세가맹점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생활밀착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출 방침이다. 이 카드사는 2.2%의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영세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을 연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3.5%의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일반가맹점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맹점은 3.3~3.4%로 인하할 계획이다. 신한카드도 내달부터 150만 개 생활밀착형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1~0.3%포인트 낮추기로 했으며 현대카드와 외환카드도 다른 카드사들도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카드사별 수수료율 현황을 보면 영세가맹점은 2.0~2.3%, 일반가맹점은 2.5~3.6% 수준이다. /연합뉴스



삼성 ‘다이아몬드 사운드 Q1’ 삼성전자는 15일 CD에 버금가는 수준의 음질을 제공하는 MP3 플레이어 신제품 ‘다이아몬드 사운드 Q1(YP-Q1)’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음질기술 DNSe(Digital Natural Sound engine)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DNSeTM3.0을 탑재해 더욱 원음에 가까운 음질을 구현했다. /연합뉴스

“美 금융위기 영향 아직 제한적”

강만수 장관, 루빈 씨티그룹 고문 등 면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 시간)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다변화 등으로 아직까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미 재무장관 출신인 로버트 루빈 씨티그룹 고문과 스티브 로치 모건스탠리아시아 회장, 존 윌리엄스 골드만삭스 사장 등과 연례 면담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경상수지도 10월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한 뒤 “신용경색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

기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상황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들도 포함하는 전세계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로치 회장은 이에 대해 “현재 상황은 시장위기일 뿐 아니라 지도력위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공조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국내 은행들의 외화유동성 상황에 대해선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통화·만기의 미스매치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삼성경제재 “내년 성장률 3.6%”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3.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5일 발표한 ‘2009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에는 대외 경제 여건이 올해보다 악화되는 데다 내수도 회복되지 않으면서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하락한 3.6%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4.4%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수준이다. 연구소는 내년 한국경제에 대해 “세계경제의 침체로 수출 증가세가 한 자릿수로 둔화돼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약화되고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 일 자리 창출력 약화 등이 개선되지 못해 내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물가는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전환함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3.2%)로 하락하는 등 하향 안정화되고 경상수지는 올해 94억달러 적자에서 내년엔 소폭 흑자(6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전환 등의 영향으로 평균 달러당 1,040원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맹위를 떨치고 있는 글로벌 금융 불안은 미국 주택 시장의 침체에 따라 내년에도 간헐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제금융으로 불확실성이 축소되면서 금융 불안이 실물 경제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소는 특히 “글로벌 금융 불안이 빠르게 진정되면 국내에서도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신속하게 안정을 찾고 현재 추진 중인 경제 살리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 경제 회복 시기가 단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이 조기 안정되고 감세와 규제 완화,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 등이 추진될 경우 2009년 하반기를 전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연구소는 내다봤다. 연구소는 내년도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1.8%(구매력평가 지수 기준으로는 3.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닭 사료첨가제서 멜라민 검출

농림부 전량 수거 폐기

닭 사료에 첨가하는 생균제에서도 멜라민 성분이 검출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경기 소재 S사의 생균제 시료 2점에서 각각 14, 37 ppm의 멜라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생균제는 유산균 등 가축에 유익한 균으로 만든 것으로, 사료에 넣으면 소화율을 높이고 가축번식의 약취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보통 사료에 1%의 비율로 섞여 쓰인다. /연합뉴스

조사 결과 S사는 올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52t의 대두단백 가공품(이스트파우더)을 원료로 사료첨가용 생균제를 생산, 12개 산란계 농가에 판매하고 현재 일부(원료 24.2t, 제품 18.8t)만 보관하고 있는 상태다. 농식품부는 경기도를 통해 S사나 농가에 남아있는 해당 제품을 전량 수거해 폐기토록 조치하고, 문제의 첨가제가 포함된 사료로 키운 계란과 닭에 대해서도 멜라민 함유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업체명	모집분야	직역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한국공업엔지니어링	[비파괴검사] 신입 및 경력사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0/16	062-369-0790
HRN	[SK텔레콤] 네트워크 서비스 사무원 여직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7	062-529-2671
세진텔레콤	전기, 통신 공무	초대졸/경력2년	2400~2600	10/17	062-576-8888
변지유 뷰티	패션디자이너 신입/경력 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7	062-222-7205
롯데가스보일러매직상사	보일러설치 및 서비스기사 경력직	초대졸/경력3년	1600~1800	10/18	062-525-7784
프린스턴 어학원	[광주 동구]학원PR, 교육상담, 회원관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8	062-434-6066
삼우FS	[신세계푸드 광주영업팀]사무관리 및 경리업무 여직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0/18	02-828-3905
케이씨씨	2009년 경기공채 신입/경력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9	02-3480-5130
디자인플러스	출판편집 미디어인 정규직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0	062-675-3144
월드뷰에	[연희부/예약실/조리부] 정규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1	062-251-7800
광주우통	소형물 시진촬영 오픈마켓 포토샵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0/21	011-642-1435
광원직업전문학교	전자#8228·통신/실내건축/전기공사/전신회계(훈련교사) 및 웹마스터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2	062-529-3000
대경건설(주)	업무입찰, 공무 경력직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10/22	062-717-5521

